

강원도의회 제265회 정례회 의원입법 · 정책 동향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제265회 정례회(2017. 6. 7.~ 6.22.) 의안 처리 목록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운 영 위원회 (2건)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운영위원장	원안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행정 위 원 회 (10건)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	원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농림수산 위 원 회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기엽 의원	수정
경제건설 위 원 회 (2건)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교 육 위원회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오세봉 의원	수정

위원회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안자) 공동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6건)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도지사	원안
	2016년도 강원도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교육감	원안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65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 내용소개

▣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웅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춘천5)



강원도 고문변호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개정 내용은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로는 현안 법률 자문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고문변호사수를 5명 이내로 늘리는 것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재웅 의원은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로는 도의 현안 법률 자문을 적절한 시간 안에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또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위촉절차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진기엽 의원(농림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횡성1)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도지사는 매년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영농·영어 및 창업인턴십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기엽 의원은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어업인과 우수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특히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애로 사항의 반영, 단계별, 연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오세봉 의원(운영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릉2)



강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감이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세봉 의원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등으로 어린이들이 놀이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에 대한 인식과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말하고 “어린이 놀이문화 조성으로 자아 존중감 및 삶의 행복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활동

■ 강원도의회 양성평등 연구회(회장 김금분 의원)

■ 창립총회 개최(2017. 6. 20.)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양성평등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6월 20일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양성평등 연구회는 강원도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책 개발방향 연구와 도내 양성평등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모임이다.

연구회는 출범식을 통해 밝힌 활동계획에서 도내 각종 양성평등 정책현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이루고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은 물론이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회 회장에 선임된 김금분 의원은 “연구회가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가족·복지 분야의 정책 및 관련 조례와 예산 등 도정전반에 대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성화를 위한 의회 역할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강원도의회 양성평등 연구회는 강원도의회 의원 1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등록을 마친 바 있다.



■ 강원도의회 한류 연구회(회장 유정선 의원)

■ 정책토론회(2017. 6. 20.)

강원도의회 한류연구회(이하 “연구회”)는 6월 20일 한한령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의 한한령 조치로 인해 위축된 한류문화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원연구원 박봉원 박사의 ‘한한령 현황과 경과내용’, 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김종하 교수의 ‘한류콘텐츠 유통관점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다.

한라대학교 김종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한한령은 양국 문화산업 교류의 양적불균형에서 비롯되었고 근래의 외교적 사건이 그 기폭제가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양국 문화 비즈니스의 비대칭적 상황이 상당기간 동안 누적됨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려는 중국정부 차원의 대응”이라는 것이다. 토론에 참가한 강원도의회 장석삼 의원은 한한령에 대한 대응과 타개책으로 “기존의 전통적 관광·문화상품 수출입 전략을 수정해 중국소비자 맞춤 등의 방식으로 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장인 유정선 의원은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규모의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시장이며 오랫동안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경제적 수혜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강원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략으로 포스트 한류의 방향을 찾아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류 연구회는 강원도내 한류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회이며 이날 토론회는 연구회원 및 강원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